

도시전설 <사라진 히치하이커(The Vanishing Hitchhiker)>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의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염원희*

요약

이 글은 <사라진 히치하이커>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전승 사례를 대상으로 현대 이야기 문화에 투영된 사회문화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이야기는 ‘사라진 존재’의 정체와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그 사회의 집단 의식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사라진 승객은 범죄나 사고에 연루되어 죽은 젊은 여성으로 그 사회에 수용되지 못한 ‘나쁜 죽음’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한 사회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통과 의례를 이행하지 못한 채 죽게 되면서 공동체에서 부정되어 떠도는 영혼이다. 또한 이 이야기는 식민지나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여성이 등장하거나, 예외적으로 기차와 같이 근대를 상징하는 이동 수단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상흔에 대한 해당 사회의 문제 의식을 보여준다.

주제어: 도시전설, 사라진 히치하이커, 통과 의례, 식민지, 베트남 전쟁, 안졸교(橋)의 아가씨, 끈떨라낙

*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조교수. kana@khu.ac.kr 논문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머리말

<사라진 히치하이커(The Vanishing Hitchhiker)>는 세계 곳곳에서 전승이 확인되는 전설로, 운전자가 자신의 차에 누군가를 태우면서 겪는 경험담을 내용으로 한다. 이 전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 내 전승에 관한 연구(Beardsley and Hankey 1942)가 이루어진 후, 관련 단행본이 출간되었다(Brunvand 1981). 또한 스티스 톰슨(S. Thompson)의 모티프-인덱스(Motif-Index)에 수록된 ‘망자(E. The Dead)’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입증되지만(Stith Thompson 1958, 419-481), 영미권 외의 지역에 관한 전승 사례는 비교적 최근에 발표되었다. 그 예로 아프리카(Johnson 2007)와 인도(Lyngdoh 2012), 일본(쓰네미즈 토루 2002), 한국(염원희 2017)에서 지역화(localization)된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연구의 초점은 주로 <사라진 히치하이커>가 어떠한 형태로 지역화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 그 사회의 특징을 어떻게 수용했는가를 중심으로 한다. 이 글은 아시아 <사라진 히치하이커> 전승을 파악하여 세계 비교 연구를 하기 위한 단계별 연구의 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사례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이야기 문화를 가리키는 ‘도시전설’은 현대 도시 공간을 배경으로 형성된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현대전설(contemporary legend)’이라고도 하며, 사실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으로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소문이나 뉴스와 혼동되기도 한다. 도시전설이 사실로 인식되거나 사실과 혼동되는 현상의 이면에는 그것이 시의성을 확보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도시전설이라는 용어에서 ‘도시’는 지리가 아니라 사회 심리적 조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장르가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건에 관해 현대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가를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수많은 도시전설 중에서도 이 글에서 다루는 <사라진 히치하이커>는 오랫동안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면서 각 사회의 집단의식을 보여주었다. 동명으로 출간된 단행본에서는 미국의 여러 지역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한국의 전승 사례를 제시하였다(Brunvand 1981, 19-46). 일본의 경우, 다양한 도시전설을 다룬 단행본에서 인력거와 택시라는 이동수단을 매개로 운전자와 승객이 만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싣고 있다(쓰네미쯔 토루 2002, 46-51). 존슨(Johnson)은 <사라진 히치하이커>의 미국 전승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에서 조사한 유형을 제시하였고, 아프리카의 빠른 발전으로 인한 문화접변의 가속화가 이야기가 전승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Johnson 2007). 인도의 전승에 관한 연구는 실롱(Shillong)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문화적 가치 및 관습을 상실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사라진 히치하이커>가 널리 전승된 현상을 분석하였다(Lyngdoh 2012). 한국은 일본, 미국과 유사한 유형이 확인되지만(염원희 2017),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전승된 제삿설화와 결합하여 차에 탄 승객이 자신의 제삿밥을 먹으러 온 귀신으로 지역화된 사례가 확인되었다(염원희 2020). 지금까지 연구는 각 지역별 전승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특정 지역에서 전승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도시전설의 새로운 전승 사례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조사한 결과를 다룰 것이며, ‘사라진 존재’의 존재의미와 이 도시전설에 내재한 해당 사회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연구대상 중 인도네시아 사례는 한 차례 연구되었다(염원희 2020). 히치하이커 문화가 보편적이지 않은 아시아에서 이 전설은 주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한국일본인도네시아가 이에 해당하며 미국에서도 전승된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오토바이 택시 앱(application)’이 등장하고, 택시에 탑승 후 사라진

승객은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설화의 주인공으로 대체되는 지역적 양상이 확인된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전승되는 도시전설의 지역화 양상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며, 또한 베트남 전승 사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사라진 히치하이커>의 아시아 전승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에 한국에서 연구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이야기 문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전통적인 설화를 대상으로 한국과의 비교 연구가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이야기에 투영된 욕망과 사회적 특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야기를 통한 입체적인 문화 연구가 실현될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여러 아시아 국가와 한국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현시점에서 이야기를 통해 공통의 문화 요소를 추출하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으리라 본다. 이는 현대 아시아를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시도이며, <사라진 히치하이커>의 아시아 전승 사례를 확장함으로써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는 이 도시전설 연구를 심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II. <사라진 히치하이커>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전승 양상

도시전설의 전승 양상을 논의하기 위해 첫 번째로 전제되어야 할 점은 이야기판의 변화이다. 전통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口傳)되어 온 이야기는 다양한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전승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도시전설은 그 전승의 출발이 ‘이메일(e-mail)’을 통해 이루어졌고 인

터넷 커뮤니티와 웹사이트에 형성된 가상의 이야기판에서 전승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유튜브 영상의 소재가 되면서 새로운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사라진 히치하이커>도 구전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나 전자신문을 통해 소개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동일한 유형의 이야기가 온라인 전승에서는 택시 운전사가 죽은 사람을 승객으로 태웠다는 체험담이고, 구전에서는 택시 운전사가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하니 그 승객의 제삿날이었다는 이야기가 전승되면서 한국의 조상신 관념 및 제사 풍속과 결합된 사례가 확인되었다(염원희 2020).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도 도시전설은 온라인과 구전 즉 실제 이야기판이라는 이중적 전승 양상이 확인되며, 피조사자는 이 두 가지 전승 방식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두 지역의 <사라진 히치하이커> 전승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네시아 전승은 한국에 체류하는 학문 목적 학습자 10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이다.¹⁾

1) 인도네시아 자료 조사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대학교에서 유학하는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페이스북 그룹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3일~19일 구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한 14인을 대상으로 기초 자료를 조사하였다. 14인 중 심층인터뷰를 승낙한 5인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23일~24일에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3월 15일에 추가로 5인을 대상으로 2차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총 10인을 인터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한국학 전공 유학생인 Margareth Theresia(경희대학교 박사수료)를 연구보조원으로 하여 번역이 이루어졌다.

<표 1> <사라진 히치하이커>의 인도네시아 전승 사례와 주요 내용

번호	피조사자가 알고 있는 <사라진 히치하이커(The Vanishing Hitchhiker)>의 주요 내용
1-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길에서 오토바이 택시를 탄 젊은 여성이 목적지에 도착하니 사라졌다. 2) 길에서 택시를 탄 남녀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니 사라졌다. 3) 앱으로 호출받은 오토바이 택시 기사가 젊은 여성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요금을 가지러 집에 들어간 승객이 나오지 않았다. 집에 찾아가니 그 부모가 나와 승객은 죽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기차역에 얽힌 이야기로 어떤 승객이 자신은 기차에 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기차길을 따라 걷기만 한 것이었다. 2) ‘안졸교(橋)의 아가씨(Si Manis Jembatan Ancol)’가 자전거 택시를 탔다가 사라졌다. 3) 승객을 택시에 태워 어느 집에 데리고 가면 승객들이 사라지는데, 실은 그 집은 비밀 사교 모임이 이루어지는 은밀한 곳으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도시전설을 만들었다.
1-3	<p>자신의 고향인 워노소보(Wonosobo)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여자와 아이가 많았는데, 늦은 밤이면 나타나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데 목적지가 없거나, 병원에 가 달라고 한다. 비용으로 여자가 낸 돈은 나뭇잎이며, 여자는 흰옷을 입고 매우 예쁘고 손가락이 3개만 있다. 차의 뒷좌석에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다.</p>
1-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알라스 로반(Alas Roban)이라는 정글 근처 도로에서 히치하이커를 만나 태워주면 갑자기 사라진경우가 있는데 운전자가 큰 행운을 얻는다고 한다. 2) 어떤 사람이 베카시(Bekasi)에서 반둥(Bandung)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자정에 버스가 멈춰서 기사와 모든 승객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이 이야기는 detik.com 이나 LINEToday라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를 통해 퍼져 인스타그램에서도 볼 수 있다.
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데픽(Depok)에서 오토바이 택시 기사가 젊은 여성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요금을 가지러 집에 들어간 승객이 나오지 않았다. 집에 찾아가니 그 부모가 나와 승객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2) 어떤 사람이 베카시에서 반둥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자정에 버스가 멈춰서 기사와 모든 승객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1-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고르(Bogor)에서 자정에 기차를 타고 망가라이(Manggarai)까지 갔는데, 운전자와 승객이 아무도 없었다. 2) 어떤 승객이 기차를 타고 망가라이까지 갔는데, 역 직원이 당신은 걸어왔고 기차는 없었다고 말했다. 3)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가 밤11시에 20대 여성을 태웠는데, 요금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 부부가 나와 3일 전에 죽은 딸이라고 말했다.
1-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느 부부가 싱카락(Singkarak)에서 메단(Medan)으로 가려고 작은 버스를 타고 이들이 걸리는 거리를 5시간 만에 도착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망해서 이미 없어진 버스회사였다. 2) ‘안졸교의 아가씨’는 1880년 정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마리암이라는 16세 여성이 나이든 부자를 거절하자 소녀를 강간 후 살해하였다. 그 후 안졸에서는 오토바이 기사가 승객을 태우면 중간에 없어지거나, 가게 주인이 물건을 가져오면 손님이 사라진일이 생겼다.

번호	피조사자가 알고 있는 <사라진 히치하이커(The Vanishing Hitchhiker)>의 주요 내용
1-8	1) 오토바이 택시 기사가 태운 젊은 여성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가지러 집에 갔는데 나오지 않아 찾아가니 부모가 나와 죽은 딸이라고 했다. 2) 어떤 기사가 승객을 태워 숲에 갔는데 갑자기 승객이 사라졌다. 3) 어떤 기사가 승객을 태웠는데 점점 무거워진 후 가벼워져 뒤돌아보니 승객은 없었다. 4) 어떤 사람이 자카르타에서 반동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휴게소에서 멈추지 않고 버스비도 받지 않았다. 도착한 후 버스회사 이름을 검색하니 10년 전 파산하였고, 그 이유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5)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가 태운 승객이 무거워져 뒤돌아보니 끈땀라낙이 있었다.
1-9	1) 반동에서 베카시까지 가는 유명 버스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었다. 2)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택시를 탔다가 기사에게 들은 이야기로, 묘지로 가는 승객이 있었는데 귀신인 것 같다고 했다.
1-10	1) 택시 기사를 통해 <사라진 히치하이커>를 들은 적이 있다. 2) 다고라는 지역에서 택시 기사가 5명의 대학생을 태웠는데, 실제 승객은 4명이었다.

두 번째로 베트남 전승의 조사는 베트남 국립 하노이 인문사회과학 대학(VNU-USSH) 4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구전이라는 두 가지 전승 사례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 중 <사라진 히치하이커>에 대해 유의미한 답변을 한 학생은 13명이었다. 추가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베트남 국적의 학문 목적 학습자 2인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유의미한 답변을 얻었으며, 이를 포함한 베트남 <사라진 히치하이커>의 전승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

<표 2> <사라진 히치하이커>의 베트남 전승 사례와 주요 내용

번호	피조사자가 알고 있는 <사라진 히치하이커(The Vanishing Hitchhiker)>의 주요 내용
2-1	택시나 트럭 운전사가 밤에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도로에서 태워달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차에 탄 후 사라진다.

2) 이 조사는 2023년 11월 30일부터~12월 2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문항을 베트남어로 번역한 후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에서는 <사라진 히치하이커>를 실제 알고 있는지 여부와 온라인 전승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함께 조사하였다. 해당 조사는 국립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에 재직하였던 서보경(한국학 객원교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필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베트남인 학문 목적학습자 2인과 2023년 11월 20일에 인터뷰를 하였으며 <표 2>의 2-14, 2-15가 이에 해당한다.

번호	피조사자가 알고 있는 <사라진 히치하이커(The Vanishing Hitchhiker)>의 주요 내용
2-2	한 남자가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된 딸을 찾는 여성을 태워주었다가 골목 앞에 내려주었는데, 잠시 후 보니 여자와 골목길 모두 사라진다.
2-3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가 묘지를 지나다 소녀를 태워 가다 보니 사라졌고, 5년 전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2-4	오토바이를 타던 남자가 도로에서 소녀를 태우고 묘지로 갔는데, 도착해보니 소녀가 보이지 않았다.
2-5	한 여자가 늦은 밤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남자를 태워 묘지로 갔는데, 그 남자의 무덤을 본다.
2-6	늦은 밤 외진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도로에서 소녀를 태워 묘지로 갔는데, 소녀는 몇 년 전 죽은 사람이었다.
2-7	버스 운전사가 차를 잡는 소녀를 태워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요금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 어머니는 소녀가 17살에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다고 말했다.
2-8	차를 운전하던 청년이 손을 흔드는 소녀를 보고 가까이 가니 피를 흘리고 있었다. 차에 태워 가다가 보니 소녀는 사라진다.
2-9	비 오는 밤 차를 운전하던 대학생이 젊은 여자를 태워 집에 데려다 주었다. 이틀 후 그 집을 찾아가니 4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었다.
2-10	어느 운전사가 도로에서 소녀를 태워서 대화를 나누며 갔는데, 잠시 후 길에서 또 다른 남자를 태우게 되었다. 남자가 차에 타자 소녀가 사라졌고, 운전자는 자신이 죽은 사람을 태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2-11	택시 운전사가 묘지를 지나다 소녀를 태웠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2-12	자전거를 타던 남자가 도로에서 흰색 옷을 입은 여자를 태웠는데, 어느 순간 가벼워져 돌아보니 소녀는 사라졌다.
2-13	새벽 2시에 차를 운전하던 남자가 도로에서 흰옷 입은 임산부를 보고 태워주었는데 출고 땀이 났다. 잠시 후 뒤를 돌아보니 여자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무서워서 집으로 갔다.
2-14	1972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청년이 도로에서 소녀를 태워주었다가 자신의 조끼를 벗어주었다. 다음날 조끼를 찾으러 갔다가 소녀가 버스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았다. 일 년 후, 그 조끼는 소녀의 무덤에 놓여 있었다.
2-15	1939-1945년 썩로(Xích Lô, 자전거 택시) 운전사가 도로에서 흰옷을 입고 밀짚모자를 쓴 여자를 태웠는데, 썩로가 너무 가벼워 돌아보니 여자가 사라졌다. 후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5년 전에 강물에서 시체가 발견된 죽은 사람이었다.

위의 표에 제시된 자료 중 <사라진 히치하이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세 번째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진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온라인 오토바이 기사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받았습니. 출발지에서 승객을 만나서 승객의 집까지 태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처럼 승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 기사가 대화를 걸어봤지만 승객이 아무 답하지 않았습니.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승객이 드디어 말했습니. “기사님, 잠시만 기다려주실래요? 택시비를 가져올게요.” 기사가 기다렸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집 문을 노크했습니. 한 사람이 나와서 기사가 물어봤습니. “아까 XXX라는 승객을 태웠는데요. 택시비를 아직 안 냈는데요. 혹시 택시비 받을 수 있나요?” “아, 그 아이가 3일 전에 사망했어요.” 집 문을 연 사람이 그 승객의 부모였습니. - <표 1> 1-1

②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가 퇴근길에 묘지를 지나갔습니. 갑자기 길가에 긴 머리를 한 소녀가 서서 차에 타려고 했습니. 차를 함참 동안 운전한 후, 운전사는 소녀가 가고 싶은 곳의 주소를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 운전사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껴 뒤를 돌아 보았고 그의 뒤에는 더이상 아무도 앉아 있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 운전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 여기저기 물어본 결과, 운전사는 그 소녀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 - <표 2> 2-3

③ 내가 1941년에 오에다(Miss Oeda)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그 지역은 내가 태어난 한국의 전라북도 군산이라는 도시이다. 나의 할머니는 시모(Shimo) 씨 부부의 좋은 친구였는데, 그들은 나에게 다음과 같은 사건을 되살려 말해주었다. 자정 무렵, 군산의 군타쿠 택시 회사(Guntaku Cab Company) 소속의 택시 운전사가 시립 화장터에서 택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화장터 앞에서 20세 정도의 젊은 여성을 태웠고, 그녀는 시모(Shimo) 씨의 철물점에 가달라고 말했다. 택시가 메이지 거리 281번지 철물점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운전사에게 요금이 없으니, 집에 가서 구해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시모 씨는 수년간 같은 위치에서 철물점을 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기 때문에, 운전사는 의심없이 밖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내 운전사는 참을 수 없어 닫힌 문을 두드렸다.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집안에 있는 누군가를 깨웠고, 졸려 보이는 시모 부인이 나와 운전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시모 부인은 소녀의 탑승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운전사가 젊은 여성을 묘사하자, 시모 부인은 운전사에게 벽에 걸린 딸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얼마 전에 딸이 죽었고, 시신을 운전사가 갔던 곳과 같은 화장터에 보냈었다. 그 운전사는 그녀를 즉시 알아차렸고, 그 후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되었다. - “A Hitchhiking Ghost in Korea”(Aoki 1954)

①은 인도네시아, ②는 베트남, ③은 한국 전승 사례로, 특히 ③은 1954년 미국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지역과 시대를 달리하는 세 편의 이야기는 줄거리가 상당히 유사한데, 늦은 밤 도로에서 운전자와 승객의 만남이 성립되었고, 히치하이커 또는 승객의 사라짐이라는 환상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줄거리는 미국, 일본, 인도,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 조사된 <사라진 히치하이커>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조사한 도시전설은 <사라진 히치하이커>의 동남아시아 전승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는 점은 세계 광포형 설화로서 이 도시전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본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수단의 특징이다. 면적이 넓고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히치하이킹은 아시아에서는 대체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승객’의 관계가 설정되며, 이미 죽은 승객을 태운 택시 운전사의 경험담으로 서술된다. ①과 ②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주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 택시가 등장하고, 베트남은 자전거 택시가 등장하기도 한다. ③은 한국에 택시 영업이 막 시작된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자료에서는 ‘택시 운전사

-승객'이 택시 애플리케이션(Taxi Application)을 매개로 연결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라진 히치하이커>의 가장 최근의 전승 형태이면서 이야기의 시대적 적응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전승 사례를 분석한 브룬반드(Brunvand)는 <사라진 히치하이커>가 전통적으로 말이나 마차를 타고 가다가 히치하이커를 만나던 것에서,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자동차 모티프를 획득했다고 하였다(Brunvand 1981, 31-32). 이동수단의 변화와 발전은 도시화의 표상이다.

그런데 베트남 자료에서는 택시가 아닌 히치하이킹이 등장하는 이본이 많다(<표 2> 2-2, 2-4, 2-5, 2-6, 2-8, 2-9, 2-10, 2-12, 2-12, 2-14).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의 경우 설문조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편향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다만 히치하이킹이 보편적이지 않은 한국에서도 '자유로'라는 특정 도로에서 선글라스를 낀 여성이 히치하이킹을 하여 다가가니 귀신이었다는 <자유로 귀신>의 사례가 온라인 전승 또는 유명인의 경험담이라는 방송콘텐츠로 나타난다(염원희 2017, 258-261)는 점에서 아시아에서 히치하이킹 버전이 전승되는 것이 이례적이지는 않다. 또한 인도네시아 자료에서는 '이동수단의 사라짐'이라는 모티프도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기차와 버스가 보급된 역사적 과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히치하이커 또는 승객의 정체성을 통해 드러나는 특징이다. 1942~43년에 <사라진 히치하이커>를 연구한 미국의 비어즐리(Beardsley)와 한키(Hankey)는 조사된 전설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Beardsley and Hankey 1942), 사라진 존재는 대체로 '망자(유령)'로 등장하고, 일부 예외적인 사례로 '예언자'가 되기도 한다. 동남아시아 전승에서 '사라진 존재'는 대부분 '망자'이며 성별은 대체로 '여성'인데, <표 1>의 인도네시아 전승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여귀(女鬼)로 등장한다. 쿤틸라낙(Kuntulanak)이 대표적이고(염원희 2020, 119-121), 네덜란드

식민시기에 유래한 <안졸교의 아가씨> 설화와의 복합화된 양상이 나타난다(1-2, 1-7). 또한 승객의 특징이 전형적인 인도네시아 귀신으로 묘사되기도 한다(1-3). 이러한 지역화는 좀 더 심층적인 논의를 요한다. 베트남 전승에서도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등장한다(2-15).

셋째, 결말이 가진 특징이다. 이 서사의 종착점은 운전자가 히치하이커 또는 승객이 ‘망자’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끝난다. 미국에서 전승된 <사라진 히치하이커>에서 가장 많은 결말은 운전자와 승객이 만났다는 ‘유사 증거(pseudo-proof)’가 제시되거나 망자의 가족이라는 ‘유사 증인(pseudo-witness)’이 등장함으로써 주인공의 죽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주로 ‘택시 운전자-승객’의 관계로 등장함에 따라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자 운전자와 망자의 가족이 만나게 되면서 정체가 밝혀진다. 결국 사라진 존재가 망자라는 것은 가족관계에 의해 드러난다. 한국은 망자가 택시를 탄 이유가 제삿밥을 먹으러 가족에게 가기 위함이었다는 제사 설화의 형태로 지역화되어 나타나기도 했다는 점에서 조상신 개념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염원희 2020, 115-118). 베트남은 승객이 아닌 히치하이커로 등장하여 ‘운전자-히치하이커’가 나눈 유사 증거가 등장하는 경우는 2-14뿐이고, 대체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히치하이커가 사라진 것으로 이야기가 종결된다. 증거나 증인은 전설의 사실성과 완결성을 강화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사라짐’이라는 환상적 결말로 마무리되면 이 현상이 운전자에게 가져올 감정적 문제가 증폭되며, 이것은 도시전설의 독자에게로 전이된다. 바로 불안과 공포의 감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라진 히치하이커>가 계속 전승되는 이유는 공포담이 가진 유희적 도구로서의 측면이 크겠지만, 여러 이본에서 찾을 수 있는 편린들에 각 사회의 특수성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자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Ⅲ. ‘사라진 존재’에 투영된 사회문화적 특징과 의미

1. 범죄로 인한 희생과 인식하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사라진 히치하이커>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사라진 존재’이다. 기존 연구에서 사라진 존재는 죽은 여성인 경우가 많았지만 예언자종교인·죽은 남성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했고, 또한 여성이더라도 단순히 망자인 경우 외에 ‘수녀’나 ‘복된 성모상(The Blessed Virgin)’, ‘마더 카브리니(Mother Cabrini)’ 등 성스러운 여성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었다(Brunvand 1981, 29). 하지만 본고에서 주목한 아시아 전승에서 사라진 존재는 ‘죽은 여성’으로 특정되며, 보통 젊은 여성이나 소녀이다. 결국 <사라진 히치하이커>는 죽음의 문제와 깊게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대 대중이 가진 죽음과 죽음에 대한 관념의 측면을 드러내는 흥미로운 속성”(Bennett 1998, 7)을 갖는다. 이 도시전설의 핵심은 죽음의 원인에 대한 규명을 통해 망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도로를 떠도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기존 <사라진 히치하이커> 연구에서 죽은 여성은 대체로 사랑스러운 아내, 배려 깊은 어머니, 아름다운 딸과 같은 전형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히치하이커는 무죄한 희생자로 묘사되며, 곧 성인이 될 아름다운 소녀였다(Bennett 1998, 8). 인도네시아 전승에서도 여성 승객은 긴 머리를 가졌다고 묘사되거나, 때로는 얼굴이 매우 예쁘다고 일컬어진다. 차에 타는 여성은 젊은 미모의 여성이며 이 때문에 모종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운전자의 심리가 은연중에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은 베트남 자료에서도 나타나지만, 2-8에서와 같이 ‘피를 흘리는 여성’이라거나 2-2의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된 딸을 찾는 여성’ 등 여성 승객이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다.

사실 망자가 떠도는 이유는 시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위한 미사를 요청하기 위해 돌아오기도 했고, 19세기에는 자신의 악한 삶에서 생긴 혼란 때문에 돌아왔다. 그런데 20세기는 사고, 살인 또는 자살로 인한 폭력적이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은 후 돌아왔다(Bennett 1998, 11). 이 글에서 다루는 동남아시아 전승은 바로 20세기 전승에서 발견되는 죽음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떠돈다는 이유가 두드러진다.

④ 사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내가 사는 곳과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진짜 인기가 많고 메단시에서도 인기가 있는 이야기라서 저도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이야기가 1880년 정도 발생했어요. ‘마리암’이나 ‘시티 아리아’라 부르는 16세 여성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름만 달라요. 첫 번째는 그 여성이 상당한 미인이어서 어떤 나이가 많은 부자 남성이 이 여성을 좋아해서 첩으로 만 들고 싶었어요. 그 여성이 거절하고 도망치자, 그 남성이 화가 나서 하수인에게 쫓으라고 했어요. 그들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그 여성을 강간해서 죽이고 시체를 눈에 버렸어요. 그 후에 안졸(Ancol)에서 몇 가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어떤 오토바이 기사가 여성 승객을 태웠는데 갑자기 중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게에서 여성 손님이 와서 가게 주인에게 물건을 달라고 하는데, 가게 주인이 가져오면 그 여성 손님이 사라지고 없는 이야기예요. 그 여성을 ‘안졸교(橋)의 아가씨’라 믿어요. - <표 1> 1-7

⑤ 남자오(Nam Giao)에 사는 타이쿤 메이 씨(Mr. Tycoon Mei)는 썩로(Xích Lô, 자전거 택시) 운전사로,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이런 종류의 차량이 큰 인기를 끌었다. 어느 늦은 밤 메이 씨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고 논라(non la, 베트남 전통모자)를 쓴 한 소녀가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메이 씨는 급히 차를 세웠고, 소녀는 서두르는 듯 앞을 가리키며 누군가 들을 것을 두려워하는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바오빈(Bao Vinh) 시장의 여객선 부두로 데려가 주세

요.” 씩로 운전사는 소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머리카락 때문에 소녀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씩로를 끄는데 소녀가 너무 가벼웠다는 것이다. 케짜(the Ke Tra) 배수로를 지나 20여 분을 달려니 한밤중에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소녀는 더이상 그곳에 없었다. 좌석은 비어 있었고,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운전사는 두려워 집으로 뛰어갔다.

다음날 운전사는 리쯔엥 씨(Mr. Ly Truong)에게 전날의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리쯔엥 씨의 집에 사는 노인인 케짜 배수로에서 여객선 부두에 이르는 근처 광장에 소녀를 모시는 작은 화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소녀는 약 5년 전에 배수로 근처 여객선 부두에서 죽었고, 시체가 떠올라 해안으로 떠밀려왔는데 고목의 뿌리와 뿌리에 얽혀 있었다. 많은 밤 그곳을 지나가는 운전사를 만나면 태워달라고 했다. 노인에게 따르면, 한번은 씩로를 끄는 두 사람이 부두의 한 소녀를 만나서 태워달라고 부탁받았다고 한다. 30분 정도 달렸을 때, 그들은 뭔가 강에 빠진 것 같은 '굉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 <표 2> 2-15

④에서는 망자가 ‘안졸교(橋)의 아가씨’라는 인도네시아의 고전적 인 이야기의 주인공과 동일시되는데, <표 1> 1-2, 1-7이 이에 해당한다. ‘안졸교(橋)의 아가씨’는 강간과 살해라는 범죄의 희생자였으며, 죽은 후 자신이 살해당한 장소에 나타나거나 택시에 탑승했다가 사라진다. 인도네시아 <안졸교(橋)의 아가씨(Si Manis Jembatan Ancol)>의 유래는 아름다운 소녀를 어느 부자 남성-화교(華僑)-이 탐냈고, 그 과정에서 소녀는 죽게 되었다. 몇몇 주민들은 그녀를 목격하였을 당시 그녀가 죽이려고 쫓아왔다고 한다(Ryzky Yan Deriza et al. 2023, 30-31).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를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³⁾ 안

3) ‘안졸교(橋)의 아가씨’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은 1973년과 2019년에 영화로 제작되었다. 1995-1996년에는 인도네시아의 ‘라자왈리 치트라 텔레비시 인도네시아(Rajawali Citra Televisi Indonesia)’에서 이 미스터리 시리즈 <Si Manis Jembatan Ancol>를 제작하고 방영했다(Ryzky Yan Deriza et al., 2023, 30).

식하지 못하고 떠도는 젊은 여성 망자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이야기가 <사라진 히치하이커>에 이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의 베트남 전승은 썩로(Xích Lô)라는 이동수단과 1939~1945년이 라는 오래전 배경을 가졌으며, 여성 승객은 ‘흰옷을 입고 논라(non la)를 쓴 소녀’로 시대적 배경에 따라 베트남의 전통적인 의상을 입은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 여성은 죽음의 이유가 문면(文面)에 드러나지 않지만, 5년 전 강에서 발견된 시신의 주인공으로 범죄의 희생자이거나 자살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녀의 출현은 부둣가에서 반복된다. 때로 목격자들은 “뭔가 강에 빠진 것 같은 ‘짹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여 여성 승객이 죽었던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마무리된다. 베트남에서 떠도는 유령은 망자의 세계에서 이방인 혹은 외부자를 뜻하는 응으어이 응오아이(nguoì ngoai)이며, 이것은 ‘나쁜 죽음’ 즉 객사(객 드엉, chet duong)로 죽은 영혼을 말한다(권현익 2016, 52). ⑤에서 사라진 존재는 객사로 인해 죽음의 세계에서 이방인이 되어 떠도는 영혼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지역의 <사라진 히치하이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인도의 실롱(Shillong)에 거주하는 카시족(Khasi)의 경우, 2002년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죽인 범죄가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을 담은 <사라진 히치하이커>가 전승되기 시작했다(Lyngdoh 2012). 이제 도시 공간에서 범죄 또는 자살로 인한 죽음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렸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안식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여전하다. 그래서 범죄의 희생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사라진 히치하이커>는 도로와 자동차, 인간 소외가 만연한 시대를 맞이한 세계 곳곳에서 널리 전승되고 있다.

또한 망자의 죽음의 원인은 대체로 범죄라는 점이 지배적이지만 인도네시아 자료에서는 망자가 전통 귀신인 ‘꾼뿔라낙(Kuntulanak)’과 동일시된다(염원희 2020, 121). 쑤뿔라낙은 사산한 아이를 뱃속에 둔 채

죽은 임신부의 영혼으로, 말레이 전역에 알려진 뽀띠아낙(Pontianak)에서 유래하였다. 끈땀라낙 또는 뽀띠아낙에서 ‘아낙(anak)’은 말레이어로 ‘아이’를 의미한다. 보통 끈땀라낙은 흰색 옷을 입고 긴 머리를 가진 끄찍하고 위험한 귀신으로 묘사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준다(Duile 2020, 281-287). 인도네시아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었는데, 끈땀라낙은 이것을 실패했다. 끈땀라낙은 도시전설뿐만 아니라 공포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여귀들은 공포영화에서 임신 중 혹은 출산 때나 출산 후 40일 이내에 살해당하거나 자살해 여귀가 된다(송승원 2015, 164).⁴⁾ 공포영화 속 여귀의 등장은 현대 인도네시아에 제기된 ‘이부이즘’에 대한 반발로 평가된다. 수하르토 정권 초기 정책 중 하나였던 이부이즘(Ibuisim, motherism)은 여성을 남편의 보조자로 규정하였고, 여성의 재생산을 통제했다(최형미 2018, 140). 이러한 현실에서 전통적인 여귀가 공포영화에 소환되면서 여성의 희생에 대한 체제비판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여귀는 사회적으로 가정을 신성시하고 가부장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상적 여성상이 현모양처로 고착화한 사회를 비판하는 기능을 하였다(송승원 2015, 169). 결국 사라진 여성 존재의 죽음의 원인인 범죄와 출산은 전혀 다른 이유인 것 같지만, 남성 폭력에 의해 희생된 여성의 영혼을 낳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4) 수하르토 대통령 집권기(1966-1998)에 제작된 인도네시아 공포영화 주인공들은 주로 민간신앙이나 전설에 등장하는 여귀였다. 이들은 순델볼롱(Suldelbolong), 끈땀라낙(Kuntilanak), 니 블로롱(Nyi Blorong), 랑수야르(Langsuyar), 뽀낭갈란(Penanggalan), 니 로로끼둘(Nyi Roro Kidul), 안출교의 아가씨(Si Manis Jembatan) 등이다. 이들은 예쁜 여성으로 묘사되고, 남성에게 살인이나 강간 등을 당해 죽은 후 귀신이 되어 복수를 한다. 이에 대해 송승원은 여귀는 정권이 규정한 젠더관계에서 이탈한 존재로 정상적인 사법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모순을 복수를 통해 지적하면서 저항의식을 보여주지만, 결국 영화 말미에 여귀가 가부장제를 상징하는 남성들에 의해 내세로 돌려보내진다는 점에서 가부장제가 공고화되는 것으로 보았다(송승원 2015, 171).

범죄와 사고·자살로 인한 이른 죽음이나 출산으로 인한 죽음은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통과의례를 거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동남아시아에서 사라진 여성 승객은 젊거나 앳된 외모이고, 범죄의 희생자이거나 때로는 출산으로 인해 희생된 여성으로 특정 장소, 곧 자신이 ‘사망한 장소’ 주변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망자는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여 그곳을 떠돌게 되었고, 산 자의 일상에 나타나지만 쉽게 배제된다. 이들 망자가 떠도는 장소는 빅터 터너(Victor Turner)의 리미널리티(liminality)에 해당하며 그들은 경계적 장소에 갇힌 불확정적 존재가 되고 만다(빅터 터너 2014, 47). 이른 죽음 또는 범죄로 인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그 사회의 통과의례를 이행하지 못한 채 죽음의 도로에 갇혀버린 망자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인지도 모른다.

결국 <사라진 히치하이커>는 전승되는 시대 또는 각 공동체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나쁜 죽음(a bad death)’에 대한 관념이 투영된 전설이라 할 수 있다. 동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죽음을 나쁜 죽음으로 보고, 이러한 경우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고 떠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죽음을 한국에서는 요절(夭折), 횡사(橫死)라 하며, 이는 비정상적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정적인 인식이 공존한 표현이었다. ‘나쁜 죽음’이란 표면적으로 범죄나 자살이 그 원인으로 보이지만, 사회 공동체가 마련한 구성원으로서의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사라진 히치하이커>는 통과의례를 거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어떤 이동수단에 탑승했다가 사라진 방식으로 드러내는 도시전설이다. ‘나쁜 죽음’으로 낙인된 존재는 공동체 안에 머무를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도시전설이 전통적인 이야기가가 가진 주제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한다.

<사라진 히치하이커>에서는 범죄로 인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근거로 망자의 떠도는 행위에 타당성을 부여하지만, ‘사라진다’는 모티프를 통해 그들이 결코 공동체에 수용될 수 없다고 말한다. 범죄나 출산으로 인한 죽음은 희생자의 의지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인해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부정되어온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집단의식을 내포한 이야기가 바로 <사라진 히치하이커>이다.

2. ‘사라진 존재’에 표상된 고통의 역사

앞서 살펴본 망자가 범죄의 희생자로 묘사되었던 인도네시아의 경우, <안졸교(橋)의 아가씨>라는 이야기의 주인공과 동일시되었다. 이 이야기가 형성된 18세기는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 식민지기로 아시아의 여러 민족은 20세기까지 제국주의 식민지라는 암흑의 역사를 공유한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오랫동안 유럽 열강의 식민지를 겪었고, 그 경험은 두 아시아 국가에 상흔을 남겼음은 물론 지금도 사회문화 곳곳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떠도는 이야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안졸교(橋)의 아가씨’는 부유한 외국인의 횡포로 희생당한 여성이라는 점에서 오랜 식민지를 겪으며 억압받은 피지배민의 경험과 정서가 수용된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계 화교와 토착민은 동화와 공존의 관계였다가, 식민 지배가 시작되면서 적대적 관계로 변화하였다. 네덜란드 식민정책에 의해 화교가 중간착취자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토착민과 크게 갈등하게 되었는데(박경태 2009, 46-47), 이러한 역사적 상황이 반영된 설화가 <안졸교(橋)의 아가씨>이다.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물론이고 아가씨의 죽음이 화교와 토착민의 갈등 관계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식민 지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역사적 상흔이

<사라진 히치하이커>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사라진 히치하이커>와 <안졸교(橋)의 아가씨>의 결합이 인도네시아의 식민지기를 상기시키는 것과 같이, 베트남 전승에서도 전쟁에 관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

⑥ 1972년 12월 말 밤 11시쯤, 논(Nhón)에서 하노이로 향하는 길에 30대 청년이 혼자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북쪽 겨울밤의 차가움이 공간을 촘촘하게 만들었고, 그의 숨결이 눈앞에서 반짝이는 후광을 발산하는 듯했다. 그 싸늘한 추위는 두꺼운 보호조끼로 막았지만, 그 조끼도 너무 오래돼서 연한 녹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황량한 길의 쓸쓸한 공간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용히 휘파람을 불었다. 북쪽 전쟁 당시에는 빛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오후 7시경 하노이는 어둠에 잠겼다. 그의 주변에는 개구리 소리와 벌레 소리만 꾸준하게 들려왔다. 갑자기 갈림길에 바구니를 들고 있는 한 소녀가 조용히 그 남자에게 태워 달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그녀는 방금 마을에서 이 32번 거리까지 와서 하노이까지 태워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간에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자전거 뒷좌석에 앉히고 일부러 좀 더 여유롭게 페달을 밟았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 소녀는 자신의 집이 ***번지에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판타인(Quan Thánh) 거리에서 온 가족이 선떠이(Son Tây)까지 대피했고, 자신은 이 마을에 있는 친척 집에 갔는데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도시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자신이 하노이 자위대 소속이고, 오늘 오후에 일 때문에 이곳에 와야 했고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먼 길이 짧아진 것 같았다. 한참을 가다가 그는 뒷좌석에 그녀가 살짝 웅크려 몸을 떨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녀가 얇은 흰색 셔츠만 입고 있었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는 재빨리 자전거를 멈추고 자기가 입고 있는 보호 조끼를 벗어 소녀에게 주면서 자신은 너무 덥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수줍게 조끼를 입고, 두 사람은 여정을 계속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신나게 이야기했는데, 뒤에서 부드러운 ‘에-’ 소리만 들렸다. 갑자기 그가 질문을 두세 번 했는데,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돌아봤고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뒷자리에 그녀는 없었다! 그는 서둘러 하노이를 향해 빠르게 자전거를 달렸다. 점점 멀리 있는 몇몇 집에서 등불이 깜박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그랬을까? 그 소녀는 왜 아무 말 없이 내렸을까? 언제부터 내렸을까?’

파괴적인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조끼는 작은 자산이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다음날 아침 그녀가 알려준 주소 판타인(Quan Thánh) 거리로 자전거를 타고 갔다. 초인종이 울리자, 침울한 표정의 남자가 나타났다. 온 가족이 대피하러 갔고, 그 남자가 집에 혼자 남아 있었다. 집에 들어가자 그는 기절할 뻔했다. 그의 바로 앞의 제단에는 그녀와 같은 얼굴, 같은 머리, 같은 미소의 사진이 있었는데, 향 연기로 인해 그 사진의 한쪽이 변색되어 있었다. 그는 얼얼불은 채 서 있다가 문 근처 벽 옆 의자에 앉았다. 잠시 마음을 진정한 후, 그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아버지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천천히 이야기했다. 그녀는 2년여 전 어젯밤에, 그가 그녀를 만났다고 말했던 길에서 버스 사고로 사망했다. 그녀가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선떠이(Son Tây)에 갔던 여름날 오후였다. 그 이후로 가끔 그녀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그도 그녀의 친구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단으로 가서 그녀를 위해 향 3개에 불을 붙인 뒤 서둘러 떠났다.

그는 그녀와의 이야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런데 그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이듬해 4월 그녀의 가족이 소녀의 무덤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무덤 옆에 있는 나무 아래에 비와 햇빛에 바랜 조끼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 <표 2> 2-14⁵⁾

5) 이 이야기를 제공한 피조사자는 2023년 11월 20일에 인터뷰에 응한 후, 11월 23일에 추가적으로 ‘2012년 5월 3일 신문기사’를 보내왔다. 여기 인용한 내용은 해당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한다.

<https://tinhhhoa.net/14409-truyen-ma-co-that-o-viet-nam-co-gai-xin-di-nho-xe.html>

“파괴적인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조끼는 작은 자산이었다.”와 “1972년 12월 말 밤 11시쯤, 논(Nhôn)에서 하노이로 향하는 길”은 이야기의 배경이 베트남 전쟁임을 알려준다. 1972년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폭격인 ‘라인배커 II 작전(Operation Linebacker II)이 하노이에 실행된 시기로, 이 폭격으로 1972년 12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하노이(Hà Nội)와 하이퐁(Hải Phòng)의 군사·공업지역에 2만 톤 이상의 포탄이 투하됐고 민간인이 최소 1,624명 숨졌다. 자전거를 탄 남성은 “하노이 자위대 소속”이라는 점에서 전쟁에 참전 중이다. 베트남 전쟁이 1973년 1월 27일 파리협정에서 종결되었고, 이 도시전설의 시대적 배경은 전쟁 종식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 히치하이커가 남성 앞에 나타난 이유는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라 볼 수 있다. 이 도시전설의 미국 전승에서도 택시 운전사가 태운 할머니가 2차 세계대전에 대해 “4개월 이상은 못 갈 것”이라 예언하였고, 갑자기 사라진 그녀를 좇아 수녀원에 간 운전사는 그녀가 10년 전 죽은 수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Brunvand 1981, 28-29). ⑥에서는 예언적 성격이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전쟁 중 사고로 희생당한 소녀의 영혼이 전쟁에 참전하는 남성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소녀는 곧 다가올 전쟁의 종식을 예언하고 고향인 하노이로 돌아가는 영혼으로 볼 수 있고, 어쩌면 그녀의 영혼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경험을 담은 <사라진 히치하이커>는 인도네시아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표 1>을 보면 망자가 아닌 버스나 기차와 같이 교통수단이 사라진 사례가 있다. <표 1>에서 1-4, 1-5, 1-7, 1-8에서는 버스가 사라지고, 1-2, 1-5, 1-6에서는 기차가 사라진다. 이러한 사례는 <사라진 히치하이커>의 변이형에 해당하는데, 존슨(Johnson)은 사람이 아닌 자동차와 같은 ‘이동수단’이 사라지거나, 함께 지났던 길이 사라진 사례

의 전승에 관해 논의했다(Johnson 2007, 27).⁶⁾ 베트남 자료인 <표 2> 2-2에서 여자와 골목길이 모두 사라진 이야기도 이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 전승에서 ‘기차의 사라짐’은 식민지기와 관련이 있다.

⑦ 이번 이야기는 2008~2010년 정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경에 자카르타 기차의 현대화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그 대학생은 말했습니다.

“제가 자카르타역에서 탔지만 기차가 조금 이상했어요. 제가 탄 칸이 승객이 없었어요. 기차가 출발했을 때 총소리가 있었어요. 옛날 총소리였어요. 옆 칸을 살펴봤는데 군인이 많았어요. 그 군인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어요. 그 군인이 저에게 오라고 했어요. 그 군인들에게 다가갔는데 이때부터 아무 기억이 없었어요.”

기차 직원이 그것을 듣고 더 궁금해져서 철도 주변에 사는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대학생이 자카르타역에서 보고르역까지 기차를 타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추라고 했지만 그 대학생이 멈추지 않았고, 눈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철도 주변에서 사는 어르신에 따르면, 자카르타역에서 보고르역까지 있는 철도가 옛날에 전쟁터였습니다. 1945년부터 1949년에 인도네시아는 독립하게 되었지만, 네덜란드 정부가 아직도 인도네시아를 지배하려 해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후 11시 반 이후에 기차가 있으면 타지 말라는 금기가 있습니다. - <표 1> 2-2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으며, 1942년부터 1945

6) <사라진 히치하이커>에서 사라진존재는 반드시 히치하이커가 아닌 경우도 있다. “Version A1 수호천사가 차가 고장 나 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갑자기 운전대를 대신 움직여주거나 비상 브레이크를 밟아줌으로써 교통사고를 막아준다. Version A2 히치하이커를 태운 후 운전자와 그의 트럭이 사라졌다가 나중에 트럭 정거장이나 다른 장소에 도착하게 된다. 이 하위 변형 형태에서는 사라진것이 히치하이커가 아니라 트럭 운전자이다. Version A3 히치하이커가 지름길이라고 알려준 길을 운전자가 나중에 다시 찾아가 보려고 하면 찾을 수 없다. 이 하위 변형 형태에서는 사라진것이 히치하이커가 아니라 운전자, 자동차, 길이다.”(Johnson 2007, 27)

년까지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었다. 이후 1945년부터 다시 시작된 네덜란드의 재점령 시도까지 물리친 1949년에야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양승윤 2014). 도로와 버스, 기차는 서구 열강을 통해 도입된 근대화의 상징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철도의 역사는 1864년에 크미즌(Kemijen)의 쓰마랑-쁘르스텐랑덴(The Semarang-Vorstenlanden) 철도 건설로 시작되었고, 자바섬에서 시작해서 아체(1876년), 북부 수마트라(1889년), 서부 수마트라(1891년), 남부 수마트라(1914년), 술라웨시(1922년)에서도 철도 건설이 이루어졌다. 당시 네덜란드 식민정부는 수확물을 운반하기 위해 철도를 건설했지만, 일본 정부는 전쟁 도구를 운반하기 위해 철도를 건설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⑦에 등장하는 인도네시아 기차역은 1873년에 완성되었는데 자카르타(Jakarta)-보고르(Bogor) 노선은 뿌리양간(Priangan)으로 가는 경로이다. 당시 서부 자바의 뿌리양간은 동인도회사의 주요 상품이었던 커피 농장이 있었다. 게다가 일본 식민지 때에는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의 철도 건설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고(Poeze 2005, 66), 철도 건설 과정뿐만 아니라 기차가 운행되는 동안에도 사고가 많았다.

⑦에서 ‘나’는 분명 2000년대 기차를 탔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네덜란드의 재점령 시도 전쟁 당시의 기차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도시전설에서 사라진 것은 기차이지만, 식민지기의 기억이기도 하다. 여러 아시아 국가에 대한 유럽 또는 일본의 식민지기는 억압의 경험이었음은 물론이고 근대 과학기술을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제국주의 억압과 근대화를 동시에 접하게 되는 과정에서 도로와 기차 같은 교통의 발전은 경험해보지 못한 외부이면서 억압과 동일시될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 혼란으로 인해 고통받은 경험은 이야기가 전승되는 사회의 오래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기차와 같은 근대적 교통수단은 고통을 표상하는 매개물이 되어 그 오래된 기억을 환기한다. 이미 지나

간 시대라 하더라도 상흔이 남아 있다면 해당 공동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정되거나 거부되게 마련이다. <사라진 히치하이커>의 ‘사라진 존재’가 해당 사회에 안착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했을 때, 식민지기와 전쟁 경험이야말로 공동체 바깥으로 밀어내야 할 대상이기에 ‘사라진 존재’가 되어야 한다. <사라진 히치하이커>가 인도네시아에서 고통의 역사와 만났을 때 버스와 기차 등 제국주의의 산물은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근대화라는 전환 과정이 가진 변동적이고 유동적인 특성은 다양한 도시전설, 소문 및 풍문의 발생과 확산을 극적으로 장려하는데, 이는 공동체가 경험하는 두려움과 의심을 나타낸다(Lyngdoh 2012, 210).” 제국주의와 냉전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피지배민이 겪은 고통의 기억은 <사라진 히치하이커>의 아시아 전승에서 편린으로나마 남겨져 있으며, 외부의 침입과 근대화를 상징하는 문명의 유입으로 인한 변화와 두려움이 어떠한 방식으로 도시전설에 투영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처럼 <사라진 히치하이커>는 세계적인 전승을 보이며, 전승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특징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변화 적응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다.

IV. 맺음말

이 글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현대 이야기 문화에 투영된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수많은 도시전설 중에서도 <사라진 히치하이커>는 여러 사회에서 지역화되면서 이야기의 사회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전승 사례를 조사하였다. <사라진 히치하이커>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사라진 존재’인데, 그 이유와 의미에 초

점을 맞춰 해석한다면 그 사회에 내재한 집단 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전승되는 <사라진 히치하이커>의 특징과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첫 번째는 범죄로 인한 희생과 인식하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내재해 있다는 점이다. <사라진 히치하이커>에서 사라진 존재는 그 사회의 ‘나쁜 죽음’에 대한 관념을 담고 있는데, 그들이 대체로 ‘죽은 여성’으로 특정된다. 이들은 어린 소녀나 젊은 여성으로 묘사되고 범죄에 연루되어 죽음을 맞이하였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사라진 히치하이커>와 <안졸교(橋)의 아가씨>와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지역화는 범죄가 죽음의 원인이었음을 분명하게 표면화하였다. 또한 사라진 존재가 전통 귀신인 꾸넝라낙과 동일시되면서 출산 중 사망한 여성으로 특정되기도 하였다. 베트남에서도 객사한 망자를 나쁜 죽음으로 간주하여 공동체에 수용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관념이 있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여성은 쉽게 이방인으로 명명되었다. 결국 범죄와 사고로 인한 이른 죽음이나 출산으로 인한 죽음은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통과 의례를 거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망자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경계에서 떠도는 불확정적 존재가 되었다. 현대 도시전설인 <사라진 히치하이커>를 통해 공동체에서 ‘나쁜 죽음’을 부정하여 온 오래된 관념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두 번째는 사라진 존재가 고통의 역사를 표상한다고 보았는데, 베트남 전승에서는 1960~70년대 베트남 전쟁의 한 가운데 하노이와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전쟁의 종식을 예언하는 소녀가 ‘사라진 존재’로 등장하였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철도로 상징되는 식민지와 전쟁의 고통을 ‘철도의 사라짐’으로 그려냄으로써 고통의 역사에 대한 도시전설 전승자들의 거부와 배척의 심리가 드러난다고 보

았다. 특히 이러한 이동수단의 사라짐이 역사적 상흔과 동일시되는 경우는 다른 지역의 전승 사례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아시아 지역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은 현대 아시아를 이야기 문화를 통해 이해하는 시도로, 지금 현재 전승되는 이야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의미 분석을 통해 ‘나쁜 죽음’에 대한 인식이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한 상처가 투영되어 있어 한 사회가 가진 비교적 전통적인 관념을 수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적 짧은 서사인 도시전설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추정할 수 있는 편린들에 의지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러한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현대 이야기 문화 연구가 심화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글은 세계 여러 곳에서 전승되는 <사라진 히치하이커>의 전승 양상을 추가로 파악했다는 점, 앞으로 아시아 전승의 전반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나 다른 문화권과의 비교 연구 등 또 다른 연구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투 고 일: 2024년 08월 16일
심 사 완 료 일: 2024년 08월 28일
계 재 확 정 일: 2024년 08월 30일

참고문헌

- 권현익, 박충환·이창호·홍석준 옮김. 2016.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 부산: 산지니.
- 박경태. 2009. “‘화교(華僑)’에서 ‘화인(華人)’으로: 식민지기와 냉전시기 인도네시아의 화인 정책.” 『다문화사회연구』 2(2): 33-61.
- 빅터 터너. 김익두·이기원 옮김. 2014. 『제의에서 연극으로 놀이의 인간적 진지성』. 서울: 민속원.
- 송승원. 2015. “인도네시아의 공포영화 속 여귀들: 근대화와 국가이부이즘에 대한 공포.” 『국제지역연구』 18(5): 158-182.
- 양승윤. 2010. 『인도네시아사』.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염원희. 2017. “한국 도시전설의 세계 광포형 연구에 관한 시고-〈귀신을 태운 택시〉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2: 251-297.
- _____. 2020.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사라진 히치하이커> 비교 연구.” 『한국학연구』 72: 105-137.
- 최형미. 2018. “인도네시아 어머니 운동, ‘수아라 이부 뿌둘리(Suara Ibu Peduil)’에 나타난 교차성의 정치학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35(1): 129-161.
- Agustiningsih, Dheka Dwi and Ani Rostiyati. 2019. “Kontruksi perempuan dalam film hantu sundel bolong.” *Journal Penelitian Sejarah dan Budaya* 5(1): 58-76.
- Aoki, Haruo. 1954. “A Hitchhiking Ghost in Korea.” *Western Folklore* 13(4): 280-281.
- Beardsley, Richard K. and Rosalie Hankey. 1942. "The Vanishing Hitchhiker." *California Folklore Quarterly* 1(4): 303-335.
- Bennett, Gillian. 1998. “The Vanishing Hitchhiker at Fifty-Five” *Western Folklore* 57(1): 1-17.
- Brunvand, Jan Harold. 1981. *The Vanishing Hitchhiker: American Urban*

Legends and Their Meanings. New York/London: W. W. Norton & Company.

Brzostek-Przybyszewska, Aleksandra. 2022. “The Story of Vanishing Hitchhiker "Made in China". Urban Legend Plot Analysis in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Studies” *Nowa Polityka Wschodnia* 3: 171-186.

Duile, Timo. 2020. “Kuntilanak: Ghost Narratives and Malay Modernity in Pontianak, Indonesia.” *Bijdragen tot de Taal-, Land- en Volkenkunde* 176: 279-303.

Johnson, John William. 2007. “The Vanishing Hitchhiker in Africa”,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38(3): 24-33.

Lyngdoh, Margaret. 2012. “The Vanishing Hitchhiker in Shillong: Khasi Belief Narratives and Violence Against Women.” *Asian Ethnology* 71(2): 207-224.

Poeze, Harry. A.. 2005. “The Road to Hell: The Construction of Railway Line in West Jav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sian Labor in the Wartime Japanese Empire: Unknown Histories* Florence: Routledge.

Thompson, Stith. 1958. *Motif-index of folk-literatu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Abstract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urban legend ‘The Vanishing Hitchhiker’

- Focusing on Indonesia and Vietnam

Youm, Wonhe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Kyunghee University

This article aimed to analyze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modern storytelling culture by examining cases of ‘The Vanishing Hitchhiker’ in Indonesian and Vietnamese folklore. By exploring the identity and cause of ‘the vanishing entity’ in these stories,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and particularities of these societies could be understood. In Indonesia and Vietnam, the vanishing passenger is often a young woman who died in connection with a crime or accident and is regarded as having experienced ‘a bad death,’ which is not accepted by society. These spirits are denied by the community and left to wander because they died without completing the rites of passage given to individuals in their society. Additionally, this story reflects the societal awareness of communal scars, as it sometimes features women who were victims of colonialism or war, or, in exceptional cases, the disappearance of modern means of transportation

such as trains.

Keywords: Urban Legend, The Vanishing Hitchhiker, Rites of Passage, Colonial Era, Vietnam War, Si Manis Jembatan Ancol, Kuntilanak

